

독자 여러분께

『일본어 총정리 N3 독해』 게재 내용에 관한 사과의 말씀

평소 당사의 서적 및 콘텐츠를 애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본어 총정리 N3 독해』의 내용 중,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이 예문으로 게재되어 있어, 교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불쾌감을 안겨드리고 폐를 끼친 점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자는 물론 당사도 결코 DV 나 폭력을 정당화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문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응이 늦어진 점 또한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우선 해당 게재에 대한 경위와 향후 대응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당 서적

- 『일본어 총정리 N3 독해』(영어·중국어·한국어판 및 영어·베트남어판)
 - ✧ ISBN : 978-4-87217-766-4 (영·중·한국어판) / 978-4-87217-962-0 (영미판)
 - ✧ (영·중·한국어판) 초판 제 1쇄(2010년 10월 31일 발행)부터 초판 제 14쇄(2021년 11월 5일 발행)
 - ✧ (영미판) 초판 제 1쇄(2015년 10월 28일 발행)부터 초판 제 7쇄(2022년 2월 25일 발행)

■ 해당 페이지

- p.80 (2 페이지에 첨부)
 - ✧ 「제 5 주 일기나 소설 읽기」 「3 일째 가족①」의 「연습」의 회화문 및 선택 항목
- p.81 (3 페이지에 첨부)
 - ✧ 「제 5 주 일기나 소설 읽기」 「3 일째 가족①」의 「문제」의 문장 및 보기 항목

■ 발행의 경위 및 향후 대응

- 2022년 11월 현재, 2010년 당시 당사에 근무했던 편집부원이 전원 퇴직하여, 당시 어떤 상황에서 발행을 하였는지, 제작 중에 적절한 검토 및 체크는 왜 없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는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집부의 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재로서 적절한 내용인지, 독자 여러분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없는지 제작 단계부터 다수의 직원이 검토 확인하는 체제를 구성하여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일본어 총정리 N3 독해』는 앞으로 반년 이내에 중판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재확인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전면 개정 출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80 및 p.81의 내용은 모두 변경할 예정입니다.
- 일본어 총정리 시리즈의 모든 서적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조속히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이용해 주시는 서적인 「일본어 총정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정해지면, 재차 당사 웹 사이트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주식회사 아스크 출판 일본어 편집부

第5週 日記や小説を読もう

3日目 家族① Family ①
家人 ① 가족 ①

★事实と筆者の気持ちを区別しよう!

Learn to distinguish between the facts and the writer's feelings! 区别事实和笔者的个人感受!
사실과 글쓴이의 마음을 구별해 봅시다!

- ~ (し)たい
- ~ と思う
- ~ と感じる
- ~ ではないだろうか。



★これらの言葉の前は、事実ではなく、筆者の気持ちを表しています。

The words preceding these phrases express the writer's feelings, rather than the facts.
这些词语前面表示的不是事实, 而是笔者的个人感受。 이러한 표현 앞에는 사실이 아니라 글쓴이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れんしゅう 次の会話文を読んで、後の文から正しいものを選ぼう。(答えは次のページ)

健 : 母さん、顔、どうしたの? また父さんに殴られたの? ひどいあざ(※1)だよ。

健の母 : ああ、でも、大したことないわよ。お父さんね、今仕事が大変なのよ。

健 : だからって、母さんに暴力を振るう(※2)なんてひどいよ。母さん、一生懸命やってるじゃないか。貧乏(※3)させられているうえに、こんなにひどい扱い(※4)をされるなんて、よくがまんしているよね。おれと恵子のことなんか気にせず、離婚しちゃえばいいんだよ。

健の母 : そう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5)わよ。あれで、優しいところもあるのよ。

- (※1) あざ : a bruise 青斑 멍
- (※2) 暴力を振るう : to be violent 施加暴力 폭력을 휘두르다
- (※3) 貧乏 : poor / poverty 貧苦 가난
- (※4) 扱い : a treatment 对待 취급
- (※5) そう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 : I can't do that 不能那么办 그럴 수는 없다

- 1 健の母は夫に殴られた。
- 2 健の母の父親は仕事が忙しい。
- 3 健の母は離婚をしたい。
- 4 健は父親が好きだ。
- 5 健は両親が離婚してもいいと思っている。

▶ 「だからって」 (=だからといって)

もんだい 次の文章を読んで、後の問いに答えなさい。(答えは別冊 p.6)

ぼくは父親に対していい思い出がない。父は画家だった。才能はあったようだが、昼間から酒を飲み、仕事をしているのかしていかないのかわからないような生活を送っていた*。父はぼくたち家族の生活のことはまるで考えず(※)、母は本当に苦勞をしてきた。気に入らないことがあるとすぐに母に暴力を振るった。食事がまずいと皿を投げられ、真夜中に酒を買いに行かされ、それでも母は文句一つ言わない**。なぜそこまでがまんをするのだろうかと思議に感じていた。父の作品が賞をとり、海外で紹介されてからは、生活に困ることはなくなったが、やはり酒や暴力は変わらなかった。そんな父が亡くなって母はほっとしただろうと思っていたのに、なぜか父のかいた絵を見ながら毎日泣いている。父のことを「いい人だった。」と言う。夫婦とは()と思う。

(※) まるで～ず：全然～ない

問1 なぜそこまでがまんをするのだろうかと思議に感じていたとあるが、筆者は母に対してどのように思っていたのか。

- 1 そんなにがまんしている母はとてもえらい。
- 2 そんなにがまんをするほど父のことを愛しているのだろう。
- 3 そんなにがまんをしないで文句ぐらい言えればいいのに。
- 4 そんなにがまんをしないで一緒にお酒を飲めばいいのに。

問2 ()に入る言葉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はどれか。

- 1 いやなものだ
- 2 悲しいものだ
- 3 美しいものだ
- 4 わからないものだ

.....
 * with the life he lead, I never knew whether he actually did any work
 父亲整天浑浑噩噩，也不知道他到底算不算是在工作 일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를 정도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 my mother never complained once
 母亲没有一句怨言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다 (左ページの答え→1・5)